오대산 월정사서 만나는 사명 대사 선필〈禪筆〉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7월 12일~10월 19일 개최
친필 묵적 등 52점 전시돼
"사명 대사 선사상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 대선사의 오대산 월정사 중수 435주년을 맞아 스님의 진영과 친필 묵적 등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사명 대사의 월정사 중수 43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禪筆)로 만나다'를 개최한다.

7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선 중기 고승이자 승병장, 외교 사절, 서예가로 활동한 사명당 유정 대선사의 삶과 정신세계를 대사의 선필(禪筆)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자리이다.

사명 대사는 오대산에 주석하며 폐허가 된 월정사의 중창불사(1587~1590)를 주도하고, 오대산사고 건립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오대산과 월정사는 수행과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별전에 출품되는 전시유물은 사명 대사의 모습이 담긴 진영, 지니고 다는 것으로 전하는 원불, 대사의 글이 담긴 전적과 현판을 비롯하여 친필과 영인된 묵적 등으로 52점이 전시된다.



은해사 성보박물관 소장 '사명 대사 진영.' 정면을 바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사명 대사의 월정사 중창과 오대산사고'는 조선 중기 폐허였던 월정사를 5년간 중창하고, 오대산사고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오대산을 불교와 국가 기록 보존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사명 대사의 진영과 유품들이 전시된다.

정면을 바라보는 독특한 형태의 '은해사 사명 대사진영'과 초서병풍을 배경으로 한 '의성 대곡사 사명당 유정 진영' '영은사 사명당 대선사 진영' 등의 진영을 비롯해 사명 대사가 호지했던 포항 대성사 소장 '원불 및 원장'과 〈사명당대사집〉 〈오대산사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부 '사명 대사 선사의 붓끝, 문인의 향기'에서는 영주 부석사 소장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 현판 및 현판 탁본'을 비롯해 대사가 남긴 해서·행서·초서 유묵이 전시된다. 특히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용담취영잡영〉은 사명 대사가 해서·초서체로 시를 필사한 책으로, 단정한 해서부터 활달한 초서에 이르기까지 대사의 여러 서체를 함께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3부 '사명 대사 붓으로 평화를 이끌다'에서는 사명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고 전후에는 외교 사절로 활약하며 포로 송환과 평화 회복에 기여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4부 '시대를 넘어 계승되는 사명 대사의 정신'은 〈선가귀감〉 〈약사유리광본원공덕경〉 속 발문을 통해 대사의 선수행과 실천에 대한 사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설 〈사명 대사〉를 비롯 현대까지 이어지는 사명 대사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대사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정사 성보 박물관은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대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명 대사의 선수행은 선필로, 붓으로 나라를 지킨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는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국가유산청 공고…경암 스님,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설행되는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또한 경암 스님을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공고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이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도량요잡 전경.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경암 스님은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는 보유단체와 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만해 제자 '무불 스님' 유묵 한자리에

만해기념관 '만해와 무불 스님 특별기획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제자 무불 스님의 유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은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만해와 무불 스님'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무불 스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인 만해 스님의 제자로서 사경(寫經)과 근검절약, 선·교 병행 수행으로 일생을 정진했다.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건봉사, 동학사, 유점사 등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만해 스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실천해 온 선지식이다. 특히 〈금강경〉을 금니(金泥)로 사경해 통도사·해인사·송광사·범어사 등 사대삼보사찰에 보시하였고, 자신의 출가도량인 계룡산 동학사에도 직접 탱화를 그려 기증하는 등 불심 깊은 행보를 남겼다.


무불스님의 친필 유묵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

이번 전시에서는 무불 스님의 진묵(眞墨) 작품, 사경 필적, 영결식 사진 등 희귀자료가 다수 소개된다. 특히 유묵 작품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은 무불 스님의 수행 철학과 맑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다.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은 "무불 스님은 글씨보다 마음이 단정하고, 수행이 예술보다 깊은 분이었다"며, "이번 전시는 만해 스님과 무불 스님의 정신적 유대를 되새기고,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의 가치를 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 불교사의 숨은 인물들을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는 상시 관람 가능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031-744-3100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③ 무상

내려놓는 지혜와 평온

無 常

무상(無常)은 고(苦), 무아(無我)와 더불어 삼법인(三法印) 중 하나로, 붓다의 초기 핵심 가르침이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며, 모든 사물과 현상은 생성, 유지, 쇠퇴, 소멸의 흐름 속에 있다. 무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진리를 말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 즉 몸과 마음은 모두 무상하며, 기쁨이나 불쾌감 같은 감정도 결국 사라진다. 의도와 욕망이 개입된 모든 관념과 현상은 인위적인 것이기에,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경〉은 말한다.

"조작된 모든 현상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라."

이 경전은 몸과 마음, 권력, 재물, 명예, 인간관계 등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고 가르친다.

서양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베르그송 역시 '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간과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이들이 무상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세상을 덧없고 헛되게 여기고,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한 의지를 포기하고 체념을 미덕처럼 여긴다. 심지어 은둔적인 삶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전은 무상의 진리를 통찰한 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무상의 참된 의미는 무집착이며,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잡아함〉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 현상은 무상하고, 알음알이도 무상하니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도, 느낌에도, 인식에도, 마음 현상에도, 알음알이에도 염증을 낸다. 그리하여 탐욕이 사라지면 해탈을 성취한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했다.

"내 관을 운구할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보이게 하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라."

시인 류시화는 이렇게 노래했다.

"잠들면서까지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자와
죽으면서도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자를
나는 보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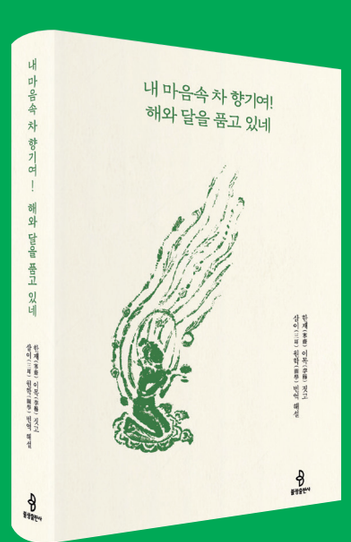
우리는 과연 무상 앞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가?

〈화순 불암사 주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 340여 년 앞서 차를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
(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심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만법이 오직
한마음[一心]일 뿐이다!

회통불교의 진수를 담은 영명연수 선사의 대표작,
『주심부(註心賦)』 완역!

스님들의 스승,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의 유작

연관 스님은 평생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삶을 살다간 이 시대 수행자의 표상이다. 직지사와 김용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조계종 최초 승가전문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학장을 맡아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전국 선원(禪院)을 돌며 수행정진했으며, 역경에도 진력하여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불서들을 다수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원융한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과 전법교화에 헌신했던 연관 스님의 마지막 번역이다.



오직 한마음이 무엇인가 ——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옮김
976쪽(양장)
5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